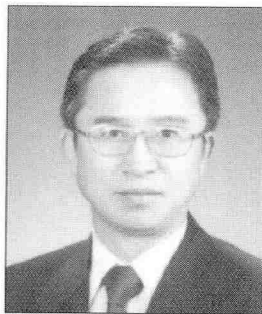


일본 '모노쓰쿠리 정신' 을 벤치마킹하여 한국 기술경쟁력 높인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사장·조석래, www.kjc.or.kr)은 지난 1992년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설립된 이래 한·일간의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국내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기술연수·지도·교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주력해 왔다. 재단에서는 크게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매년 200명이 넘는 국내산업인력의 일본연수등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일본과의 전략적 제휴 및 정보 공유 등 '원-원 전략'에 기초하여 더욱 고도화되고 다양해진 산업기술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그간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허남정 전무이사.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일간의 교역 규모는 724억 달러에 이르며 일본은 중국 다음가는 큰 시장으로 연간 57조 엔 규모의 세계 최대 수입시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에도 일본과의 교역 및 협력은 우리나라의 성장 발전에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양국

의 중소기업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2년 9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설립에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양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한일재단에서는 그동안 기술자 전문연수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된 기술경쟁력강화사업, 기계부품협력 등 11개 사업으로 구성된 기반기술강화사업, 일본아웃소싱 시장진출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된 산업협력강화사업 등 3개 사업 분야의 25개 단위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1993년부터 본격 시작된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추진에 들어간 재단은 2006년까지 산

업기술인력연수 인원만 3863명, 부품소재산업 협력분야 204건, 무역·투자협력분야 160건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강화 및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해 평균 200명이 넘는 산업인력의 일본 연수를 14년 동안 실시해오며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한해 평균 재단 통해 200명 일본연수

재단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많은 성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아무래도 산업기술인력 육성이 아닐까 싶다. 재단을 중심으로 현장기술자, 중견간부, 기업 경영자들의 대일 연수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가운데 2006년까지 3863명이 교육을 받았고 일본정부의 예산지원과 적극적인 협조아래 인적네트워크를 견고히 하는 데도 큰 일조를 했다.

특히 기계, 자동차, 금형, 광학, 염색, 계량 등 부품소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하여, 상담회와 전시회 등을 적극 지원한 결과 대일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와 2006년도 대일본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156억 불 적자를 기록하며 2005년(161억 불 적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2007년 들어서는 감소추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기술의 노출을 꺼리는 분위기에서 일본의 핵심기술이 한국으로 넘어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한계점과, 최근 한국이 IT기술등을 강점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을 경쟁상대로 인식한다는 점이 더욱 큰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이 1996년 OECD가입을 계기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면서 일본의 고민은 시작됐다. 일본이 개도국 이외에 국제협력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는 나라는 현재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한일재단은 일본의 이같은 반응과 우리 정부 차원의 연수비 예산 삭감이라는 문제를 놓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승혁 대리는 “우리 정부에서 최근 연수보다

는 신규기술지원 및 신규시장진출에 따른 지원에 더욱 비중을 높여감에 따라 기존 일본연수 비중이 70~80%였다면, 지난해에는 45%, 2008년에는 30%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단을 통한 양국의 협력패턴도 최근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빈 팀장은 “예전에는 기술협력이 주였는데 최근 들어 기술협력 비중은 줄어들고 신산업 분야의 육성 및 신규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과의 지역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상호 윈-윈(Min-Min)체제로 협력패턴을 바꾸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윈-윈 체제'로 협력패턴 변화

지금까지는 '기술선진국 일본'과 '기술습득국 한국'과의 관계로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무조건 지원받은 상황이었지만 일본 측에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협력내용을 변경하자는 요구가 강해지면서 한일재단의 고민도 가중됐다.

김창빈 팀장은 “향후에는 양국 지역간 경제교류회의를 비롯하여 클러스터(기술거점)간 협력, 산업협력촉진 등을 통해 일본지방자치단체 및 클러스터간의 지역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무역·투자 등 지방자치단체간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등 상호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협력관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단에서는 일본기업연구센터 설립과



▶ 재단 주최로 열린 일본의 우수중소기업 초청, 이웃소싱 관련 한일 중소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광경.



함께 쌍방향 서비스를 위한 일본기업정보 사이트(www.jabis.org)를 구축하여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일본 산업기술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으로의 기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일본아웃소싱센터도 건립하고 기업 아웃소싱 매칭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단은 국내 업종별 기술향상을 광학, 계량측정, 염색 등 18개 관련 협회 및 기관과 연수사업을 진행했으나 2008년부터는 전문 업종별 연수사업은 지향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금년부터 개발한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 좋은 유망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기술자를 일본으로 연수 보내는 기술협력의 비중이 줄면서 국내업체의 기술력 향상에 제동이 걸릴 것에 대비해 재단에서는 새로운 자구책을 마련했다.

그 첫 번째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거 퇴직이 예상되는 700여만 명의 일본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 퇴직 기술자들을 우리 제조업 현장에 고문 형태로 연결하여 장·단기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일본 단카이 세대 기술자들의 DB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일본기업연구센터를 통해 일본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양국간 기업정보, 컨설팅, 이슈분석 및 정책제언, 신사업 발굴기능 강화 등 교류를 통해 협력유망산업분야 및 아이템 발굴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온라인(Only-One,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소기업 발굴 등도 중점 추진 사항이다.

세 번째로 우리 기업들의 일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아웃소싱 매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업종별로 일본 아웃소싱을 원하는 30~40여 개 기업체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미 2007년 1월 일본아웃소싱센터가 설립됐는데 이를 통해 일본글로벌아웃소싱기업 동향 조사, 양국의 우수기업 발굴 및 DB구축 등을 통해 한일간의 아웃소싱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해외거점 확보를 위한 사업구상도 진행하고 있다.

김창빈 팀장은 "재단은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해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남정 전무이사는 "우리 기업들도 일본의 모노쓰쿠리(좋은 물건 만들기) 정신을 본받고 체득하는 것이 우리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일무역 불균형을 개선시키는 관건이라 생각한다."며 "재단에서는 일본의 다양한 모노쓰쿠리 연구회와 교류, 그 정신을 국내 산업계에 전파하고 접목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을 구상·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 4월 부산에서 열렸던 한일경제인회의의 광경.



▶ 일본 공장을 견학중인 연수단의 모습.